

탁월한 디테일 '피겨 여제' 김연아

힘과 유연성 '신예 돌풍' 리프니츠카야

新 맞수?



'신예의 패기 넘치는 힘이나, 베테랑의 탁월한 정교함(디테일)이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꽃' 피겨 여자 싱글에서 러시아의 요정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가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디펜딩 챔피언 김연아(24)와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랜 맞수이던 아사다 마오(24·일본)가 트리플 악셀 점프를 다듬는 것과 연기의 예술성을 끌어올리는 전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색깔을 잃은 사이에 리프니츠카야는 뚜렷한 강점을 내세워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리프니츠카야의 경쟁력은 10대의 젊음에서 나오는 힘에 있다. 은반을 박차고 뛰어올라 팽이처럼 돌아가는 점프의 회전력은 김연아 못지않은 속도를 자랑한다. 스핀을 돌 때에도 보는 이를 감탄케 하는 속도가 살아 있다. 체조 선수처럼 완벽하게 몸을 접는 유연성도 그의 스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리프니츠카야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 10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단체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1.5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초반에 연달아 뛰어오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의 기본점은 김연아를 능가한다. 두 점프 외에 다섯 개의 점프를 경기 시간 절반이 지난 이후에 몰아넣어 10%의 가산점을 붙인 데에서도 힘과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스핀은 세 번 모두 최고 수준인 레벨4를 받았다.

리프니츠카야의 이런 강점은 피겨 선수로서 전성기를 넘긴 나이라 힘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김연아의 고민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김연아는 신예 리프니츠카야가 아직 갖지 못한 탁월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날 리프니츠카야의 예술점수(PCS)는 69.82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김연아의 높은 PCS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김연아는 두 번째 정상에 오른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려 73.61점의 PCS를 받은 바 있다.

리프니츠카야가 당돌하게 드러내는 젊음의 힘과 김연아가 노련하게 표현하는 디테일한 연기력의 격돌이 피겨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전훈련장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카 스포츠센터.

KIA 타이거즈·광주FC 일본 전훈 날씨 '복병'

날씨가 광주와 KIA 전지훈련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광주 FC와 KIA 타이거즈는 2014년 비상을 꿈꾸며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 후보로 출발해 3위와 8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만큼 두 팀에게 올 시즌은 명예회복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 하지만 1년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날씨가 선수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광주의 캠프지가 꾸러진 시즈오카에는 20년 만의 폭설이 내렸고, KIA 캠프에는 비가 따라다니고 있다.

광양에서 손발을 뻗었던 광주는 지난 3일 시즈오카로 건너가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들어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브라질을 누비고 있어야 하지만 꺾이지 않은 시선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부랴부랴 시즈오카로 전지훈련지를 옮겼다. 따뜻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끌어올리는 게 전지훈련의 목표지만 훈련 시작 1주일도 안돼 눈이 쏟아지면 선수단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일본 중심부에 쏟아진 눈폭탄에 선수단 훈련지와 가까운 하네다 공항에 결항사태가 빚어졌고 차량 통제가 이뤄지는 등 선수들의 발이 묶였다. 주말 내내 쏟아진 눈이 그라운드를 덮는 바람에 선수들은 야외 훈련 대신 실내에서 웨이트를 하고 공을 차고 있다.

다행히 눈이 그치고 기온이 오를 거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선수들은 11일 모처럼 제대로 그라운드를 밟게 될 전망이다.

오키나와에 있는 KIA 선수단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시즈오카에 비해 기온은 따뜻하지만 이곳에는 비가 문제다.

광 캠프에서도 비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빗소리가 지겹다. 1월15일 스프링 캠프 일정에 투입한 KIA는 지난 5일까지 광과 오키나와로 나눠 캠프를 진행했었다.

따뜻한 곳에서 위급업을 해야 하는 투수들이 광으로 향했지만 비가 계속되면서 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송은범 등 8명의 투수는 예정보다 4일 빠른 1일 오키나와 캠프에 조기 합류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캠프 역시 비가 걸림돌이다.

니혼햄과의 첫 연습경기가 열렸던 9일, 오전부터 비가 계속되면서 경기는 7회 강우 콜드게임으로 끝났다. 여기에 이주 내내 비 예보가 있어서 실내 연습장이 없는 KIA 캠프에 날씨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화가 간다

오늘밤 9시45분 500m 출격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의 질주가 막을 올린다.

11일 밤 9시45분(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틀레트 아레나에서 열리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펼쳐질 이상화의 금빛 레이스는 4년 전 밴쿠버보다 더 순식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적수가 없는 '금메달 0순위'로 꼽히는 이상화는 예니 볼프(독일), 왕웨이싱(중국), 율가 왓클라나(러시아), 헤더 리처드슨(미국) 등 다른 선수와의 경쟁보다는 기록에 더 관심이 쏠린다.

이상화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1·2차 레이스 합계 76초090의 기록으로 2위 볼프(76초140)와 단 0.05초 앞서며 아슬아슬하게 우승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4년 전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더 큰 차이를 내며 2연패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열리는 아틀레트 아레나는 당초 밴쿠버의 올림픽 오벌과 비슷한 빙질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대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회가 열리기 전 현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빙질이 나쁘다"고 입을 모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분14초41의 기록으로 남자 5000m 우승을 차지한 스톰 크라머(네덜란드)는 이번에는 6분10초76의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섰다.

이상화는 올 시즌 월드컵 4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이상화의 기록은 37초36. 순위는 당연히 1등이었다. 이상화가 이 정도 기록을 낸다면 1·2차 레이스의 합계 기록은 74초대 후반 정도에 형성될 수 있다.

두 번을 합쳐 1000m에 달하는 질주가 고작 75초 내외에 끝나는 '광속 레이스'가 기대된다. 현재 여자 500m의 올림픽 기록은 2002년에 '기록의 산실'로 유명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카트리오나 르메이든(캐나다)이 작성한 37초30이다.

당시 르메이든은 두 차례 레이스 합계 74초750를 기록했다. 이 역시 1998년 2차 레이스가 도입된 이래 가장 빠른 기록이다. 2002년을 제외한 세 번의 올림픽에서는 모두 76초대 기록의 우승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광주 FC - 광주패밀리랜드 후원 협약



광주 FC가 10일 월드컵경기장 2층 사무실에서 광주패밀리랜드와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패밀리랜드는 각종 프로 모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FC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과 연간회원권 20% 할인, 각종 이벤트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 FC 제공>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